

미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 연구방법론 교육의 특성과 현황

Research Methods as a Core Competency in the U.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박소연, 계명대학교

Soyeon Park, Keimyung University

본 연구는 미국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Master of Library Services) 교육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 다른 대학원 프로그램에서의 연구방법론의 위상을 문헌정보학과와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문헌정보학의 경우, 연구방법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매우 다양하고 일관성이 없었으며, 다수의 문헌정보학 프로그램들 내에서 연구방법론이 필수과목이 아니었으며, 상위 20위에 드는 학교 중 절반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자연과학 프로그램, 대부분의 사회과학 프로그램, 경영학 석사과정 (MBA), 사회복지학 석사과정들이 연구방법론을 핵심과목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들 분야들은 자신의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방법론 과목을 개설하였다. 또한 이들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승인하는 국가적인 기관들이 연구방법론의 필수과목 개설을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연구방법론의 핵심과목 지정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환경 속에서 문헌정보학 분야에 있어서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요구된다. 곧 문헌정보학이 독립된 학문분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걸맞는 새롭고 독자적인 연구과제, 이론체계, 교육과정, 교육방

법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타학문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방법론의 견실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본 연구는 미국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내에서 연구방법론 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미국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프로그램들 (Master of Library Services) 내의 연구방법론 과목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다른 대학원 프로그램에서의 연구방법론의 위상을 문헌정보학 과들의 연구방법론과 비교하였다.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경영학 석사과정 (MBA),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교육학 석사과정, 사회학, 심리학 석사과정, 자연과학 프로그램 등이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특히 미국 내에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과 함께 professional school로 분류되는 경영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과의 교과과정이 중점적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학부교육보다 대학원 교육이 더 연구중심이라고 할 때, 미국의 대학원 교육이 한국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훨씬 많은 수의 대학원 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미국의 교과과정을 조사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개발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미국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MLS) 에서 연구방법론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ALA가 인정한 미국 내 56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중 52개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에 제공된 대학원 카탈로그와 교과과정을 2000년 12월 약 2주의 기간동안 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제외된 4학교의 경우, 교과과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 기관이 복수의 석사학위를 제공할 경우, ALA가 인정한 학위 (MLS: Master of Library Services, MLIS:

Maste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만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다른 대학원 프로그램, 특히, 경영학 석사과정 (MBA),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교육학 석사과정의 교과과정이 문헌정보학 분야의 교과과정과 중점적으로 비교되었다. 이들 프로그램을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프로그램과 비교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professional school이라는 점에서 각각의 소속 대학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비슷하며, 또한 학생들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는 등 여러 면에서 문헌정보학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들 프로그램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각각의 분야의 프로그램이 인정받을 때의 표준 (accreditation standard)도 비교되었다.

3. 연구결과

3.1 “연구방법론”의 정의

52개 문헌정보학과 의 교과과정과 카탈로그의 분석결과 연구방법론과 관련된 과목명칭들이 다양하게 불리어지고, 과목명에도 통일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방법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도 매우 다양하였는데, 몇몇 학교들은 두 개 이상의 연구방법론 과목들을 개설하고,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심층적으로 다루는데 반해, 어떤 학교들은 문헌정보학 개론 과목에서 방법론에 관련된 주제들을 간단히 다루는데 그쳤다. 또한 미국의 다른 사회과학 분야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이나 통계학에 대한 지식이 대학원 입학 시 필수조건이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ALA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을 승인 시의 기준이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하다는 점, 즉 ALA가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과목들을 명시하지 않고, 연구방법론 과목 개설을 필수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데서 부분적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3.2 “연구방법론”의 필수과목 여부

52개 학교 중에서, 32개 프로그램은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였고, 나머지 20개 프로그램은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지 않았다. 흥미로운 현상은 다수의 상위권 프로그램들이 연구방법론 과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U.S. News & World Report에 의한 문헌정보학과 순위에서 상위 10위에 드는 11개 프로그램 중 5개의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상위 20위에 드는 24개 프로그램의 경우 절반에 해당되는 1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3.3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모든 MBA 프로그램들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이나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는 MBA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국가적 기관인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anagement Education (AACSB)이 MBA 인정조건으로 연구방법론 필수과목 개설을 규정화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MBA프로그램들 내에서 연구방법론 과목들의 내용은 문헌정보학과보다 좀더 일관성 있으며, 동질적이고, 심층적이었는데, 대부분의 MBA프로그램들은 경영 의사결정 (business decision making)을 위한 계량적 연구방법과 통계를 강조하였다.

3.4 MSW (Master of Social Work)

사회복지학 석사과정 (Master of Social Work)을 인정하는 기관인 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역시 연구방법론 개설을 명시하므로,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이 개설된 기관 내의 모든 사회복지학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에

게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이나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였다.

3.5 교육학 석사과정

교육학과의 경우 다양한 명칭의 학위를 부여하고, 각 분야마다 다양한 세부분야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필수과목을 요구하므로, 교육학 분야 전반의 교육과정을 논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The National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Teacher Education (NCATE)의 경우, 연구방법론을 핵심과목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이는 교육학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서 교육학과 프로그램들 간에 연구방법론 과목의 명칭이나 내용, 필수과목 설정에 있어서 통일성이 없었다.

3.6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

연구방법론이 자연과학 분야의 과학적인 탐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가정 하에, Rutgers 대학교 Dan O'Connor교수가 자연과학 분야의 교수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결과,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전산학 등의 분야에서 학생들에게 수학, 실험실습 등의 방법론의 교육을 엄격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학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별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이 조사되지는 않았다.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연구방법론의 위상을 분석하기 위해 심리학과 사회학 분야의 교과과정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문헌정보학과 상위 20위에 해당되는 24개 대학들의 심리학과 석사과정 교과과정을 분석한 결과, 모든 심리학과 프로그램들이 통계학에 대한 지식을 입학조건으로 요구함과 동시에 최소한 2개의 연구방법론의 수강을 교과과정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같은 기관 내의 모든 사회학과 프로그램들이 최소 하나의 연구방법론과 통계학을 요구하였고, 대다수의 사회학과 프로그램들은 둘 이상의 연구방법론과 하나 이상의 통계학 과목 수강을 요구하였다. 사회학과 프로그램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방법론 과목 수강 시 계량적 연구방법이나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4. 결론

모든 학문분야의 필수적인 요소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의 적절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특히 연구 중심을 지향하는 대학원 교육에서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인정한 문헌정보학 석사과정 교육과정에서 연구방법론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을 같은 대학 내의 경영학 (MBA), 사회복지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분야 등의 교육과정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교육학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연구방법론을 핵심과목으로 지정하였고 학생들에게 연구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입학조건으로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각 분야의 프로그램들을 승인하는 국가적인 기관들이 연구방법론의 필수과목 개설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분야들은 자신의 분야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방법론 과목을 개설하였는데, 경영학 (MBA)의 경우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계량적 연구방법과 통계를 강조하고, 심리학의 경우, 실험 디자인과 통계를 강조하고,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의 경우, 계량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균형을 비교적 강조하였다. 반면 문헌정보학의 경우, 연구방법론에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었으며, 이 연구에 포함된 52개 프로그램 중 3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였

고, 특히 상위 20위에 드는 24개 프로그램의 경우 절반에 해당되는 12개 프로그램만이 연구방법론을 필수과목으로 요구하였다. 또한 ALA (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을 승인 시, 문헌정보학 분야의 핵심 과목들을 명시하지 않고, 연구방법론 과목 개설을 필수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방법론에 대한 경시는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연구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이 독자적 학문분야로 생존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 학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독자적이고 일관적인 연구방법론의 개발과 연구방법론의 필수과목 지정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시, 연계학문, 유사학문의 교육과정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추후과제는 한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연구방법론 과목의 특성 분석과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Park, S., & O'Connor, D. O. Research Methods as a Core Competenc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제출)
- O'Connor, D. O., Park, S. (2001). Crisis in LIS Research Capacity.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출판예정).